

# 보살의 길

2005년 여름호 제22호



KT&G 재단후원 은빛한마당 잔치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불교양로원

# 어르신이 주는 행복



양보금 (생활지도원)

**처**음에는 머리로 사랑을 했고, 두 번째는 눈으로, 손으로 사랑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가슴으로 사랑을 느끼게 되어 버렸다.

안녕하세요? 길지는 않지만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했던 지난 2년여 간의 생활로 인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자니 순간순간 기뻐던 일, 힘들었던 일, 마음 아팠던 일들이 아련히 떠오르네요.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하던 2년 전, 입사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이다.

한 어르신이 옷에 똥을 싸서 나에게 빨아 달라며 건네어 주셨다. 너무 놀라서 받아들이고 해결하려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이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머리로만 사랑을 하려고 했던 것이 원인이 된 듯싶었다.

그 후 하루, 이틀, 사흘... 어르신들의 생활에 젖어 들어가면서 같이 호흡하고, 느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떤 어르신은 아침 식사하시면 바로 외출하시어 저녁 식사 전에 들어오신다.

그분들은 조금이나마 외부에서의 자신의 생활에서 삶의 활력소를 찾고 의미를 찾으시려 하시는데, 날마다 원내에서만 계시는 분들은 다르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저마다 갖고 계신 외로움이나 무료함을 모두 달래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런 무료한 시간을 달래시려고 할아버지들은

장기를 할머니들은 화투를 즐겨 하신다.

나는 할아버지와 같이한 생활이 더 많아서인지, 어떻게 어깨 너머로 장기 두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몇 수 접어주고 두던 것이 이제는 제법 잘 둔다고 하신다. 가끔가다 양로원내에서 조그만 상품을 놓고 장기대회를 하는데, 그럴 때면 얼마나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신지 그 순간순간 아무생각 안 하시고 게임에 최선을 다 하신다.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보다 많은 놀이를 통하여 어르신과 좀더 같이 해야 할 텐데 하는 것이다. 양로원 생활을 하면 어르신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다. 어떤 분은 너무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자식하고 살아도 이렇게 잘해주지는 못할 거라 하시고, 어떤 분은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항상 외롭고 쓸쓸하시다는 분들도 있다.

얘기를 나눌 때 마다 모든 어르신의 마음을 헤아려드려서 보다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너무 죄송스럽고, 안스러운 마음에 눈물질 때가 있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모든 것을 진심으로 대하고 행동하며, 가슴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항상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하며.....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합니다.

# 마음이 부자되어 돌아오는 일·요·일·아침

**누** 구나 이불 속에서 늦잠을 꿈꾸는 일요일 아침 한 주의 피곤함이 채 가시기 전에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봉사 갈 준비를 합니다. 시흥역에서 만난 사람들과 혜명양로원으로 향하고 입구로 들어가며 마주치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반갑게 그리고 조금은 수줍게 인사를 하며 그렇게 봉사가 시작 됩니다. 각 층에 계단, 거실, 베란다, 화장실 등 청소를 도 맡아 하고 할머니들 목욕 봉사 까지...할머니들 목욕봉사는 할머니의 안전을 특히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더욱 조심스럽고 긴장하게 됩니다. 봉사하는 순간만큼은 아침에 눈 뜰 때 이불 속에 좀 더 머무르고 싶어하던 것

들을 잊어버려 누구보다 열심히 땀 흘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고, 우리 봉사자들에게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할머니 할아버지 들이 무척이나 고마워 하실 때 조금은 게으름을 피웠던 것,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스쳐지나 가면서 스스로 반성 하기도 합니다. 봉사를 마치고 나서 찬물에 세수를 하고 복지 사님이 주시는 시원한 음료수 한 잔이면 몸도 마음도 개운함을 느낍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제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그리고 우리 f.g.t.g. 회원들에게 배운거죠. 받은

사랑을 다시금 베푼다는 모토아래 모인 f.g.t.g.와 혜명양로원의 인연이 오랜 시간 지속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은 저 뿐만 아니라 f.g.t.g. 회원들 모두가 마음이 부자 되어 돌아오는 일요일일거라 믿습니다.



f.g.t.g.(일요일 단체봉사팀)

# 즐거워요 목요일



박 성 은 (미술활동)

**따** 사로운 햇살과 싱그러운 아침공기를 마시며 유난히도 파란하늘을 보게된건 매주 목요일 혜명양로원으로 봉사활동을 나가게 되면서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스스로가 변화되었기에 더욱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하고 하늘이 더욱 파랗게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신여대 경제학 4학년에 재학중인 저는 아직 학생이지만 양로원에 오면 어르신들께서는 저를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어르신들께서 선생님이라 불러주시면 마냥 신이 납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처럼 청소를 하면서 노력봉사를 하기엔 아쉬운점이 많았는데 마침 미술프로그램 진행할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하시어 미술 프로그램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만들고 그리고 꾸미기를 좋아하던 저에게 미술 프로그램 진행은 매우 즐거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풍선에 그림그리기, 고무찰흙 빚기, 크레파스를 이용한 스크래칭, 요쿠르트병을 이용하여 인형 만들기, 데칼코마니, 야외에서 정물화 그리기, 잡지 오려 붙이기, 사물 본뜨기 등 매주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 가끔은 무엇을 할지 고민이 되고 좋은 소재를 찾지 못해 스스로 답답해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미술활동 하면서 매주를 기다리

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힘이나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술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단순히 오리고 붙이고 무언가를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듯 합니다. 한분 한분 성함을 부르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를 여쭙고 오늘의 주제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어려워하던 분들도 잘 이해하시고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미술활동이 어르신들께는 소근육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많은 어르신들의 참석을 권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의 미술프로그램 봉사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르신들의 소중함과 나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었던 저는 봉사활동을 통해 할아버지 할머니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술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전 매우 행복합니다. 마음과 마음은 통하기 마련인데 저로 인해 어르신들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함 속의 더 큰 소중함, 그동안의 봉사활동을 계기로 앞으로 어르신들께 더 많은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파란 하늘이 더욱 파랗게 보일 때까지..

# 혜명향년파당



| 5.6 즐거운 나들이 |

양로원 어르신 40명이 온양온천과 민속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오랫동안 하는 나들이에 모두 즐거웠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더욱 즐거웠습니다. 우리어르신들 언제나 그 기분으로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 금천보건소 진료 |

금천보건소에서 매월 방문하여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혈압체크와 질환 관련약을 주셔서 어르신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금천보건소에 감사드립니다.



| 미술활동 |

매주 목요일이면 다양한 미술활동이 박성은, 고수경 선생님과 이루어집니다. 정물화그리기, 상자로 물건만들기, 풍선에 그림그리기, 모자이크 등 어르신들이 늘 새로운 것을 접해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대학 4학년으로 바쁜 중에도 즐겁게 활동에 임해주시는 이쁜 두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우리춤 체조 |

주성미강사님께서 새롭게 오셔서 우리어르신들에게 우리노래에 맞춰 하는 체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처음 접하는 것으로 연세가 있는 노인들은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체조로 모두 좋아하시며 잘 따라하시고 계십니다. 주성미선생님 우리 어르신들과 오래오래 함께 해 주세요.



| 삼겹살 파티 |

양로원의 멋진 정원에서 할아버지들이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그릴을 만들어 즉석에서 구운 삼겹살과 쌈, 막걸리 한잔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앞으로 자주 정원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 걷기대회참가 |

서울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최한 남산 걷기 대회에 우리어르신 10여명이 다녀오셨습니다. 남산의 개나리와 벚꽃길을 걸으며 어르신들과 나눈 담소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아직도 청년같은 열의를 갖고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들 모두 지금 같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 4.23운영위원회회의 |

4월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2004년 결산보고와 2005년 예산보고, 사업계획 등을 얘기 나눈 자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날 얘기되었던 것들은 원 운영에 반영하여 좀더 투명하고 원활하게 모든 일들이 처리되게 하겠습니다.



| 5.7 사랑의 닭꼬치 |

후원자 구청수부부께서 어버이날을 맞아 직접 용품을 가져와 닭꼬치 구이를 해주셨습니다. 해마다 어버이날 참 방문하여 우리어르신들에게 위안을 주시는 후원자 구충수, 임옥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안양교도소 재소자 사회봉사 |

안양교도소 재소자들이 양로원으로 사회봉사를 나오셨습니다. 어르신목욕, 계단, 화장실, 베란다 청소 등 양로원의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습니다. 원장님은 좋은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 혜명동점

## ◎ 시설개요

- 시설명 : 혜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원일 : 1982년 4월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재근 (현성큰스님)
- 정원 : 64명 (남28명/여:32명)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 ◎ 입소대상

### ■ 무료입소

입소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입소신청 : · 거주지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 양로원(상담 및 입소 결정)

## ◎ 현재 입소인원

• 총 106명

할아버지 : 26명

할머니 : 35(2)명

희망의 집(노숙인 쉼터) : 45명

※( )는 실비입소자입니다.

## ◎ 직원 현황

• 총 16명

원장/사무국장 1명 /간호사1명 /영양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전문상담원 1명 /생활지도원 6명

위생원 1명 /서무 1명 /관리인 1명 /조리원 5명

## 2005년 상반기 후원금 수입·지출내출 (2005년 1월~6월)

수입		지출	
후원금 종류	금액	지출내역	금액
지역사회 후원금품	19,499,821	제수당	649,260
		수용비 및수수료	480,870
		공공요금	1,357,650
		제세공과금	576,430
		차량비	806,610
		자산 취득비	493,900
		시설장비 유지비	483,000
		생계비	3,116,250
		수용기관 경비	396,600
		의료비	84,600
		장의비	171,050
		특별 급식비	373,500
		연료비	3,621,14
		프로그램 사업비	235,070
합계	19,499,821	합계	112,845,930

## 자·원·봉·사·자

2005년 4월 1일 ~ 6월 30일

f.g.t.g.(단체봉사팀), 동국대한방병원, 이승희(미술교실), 문덕녀(대림미용실), 안양교도소이발, 영등포교도소이발, 문일고, 동일고, 금천고, 동일여고. 시흥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금천문화원무용반 임호순외 6명(치과진료), 김미경(종이접기), 금천보건소, 불자연수지침팀(박경희,민귀남), 윤순재(사랑의 모임 국악팀), 라이언스안과, 동일여상, 이현교외 침술봉사팀, 조기환(물리치료), 대한적십자회원들, 황은영(음악치료), 건강체조(최순남, 서현정), 백산초등학교 6-5반, 문백엔젤스, 한국야쿠르트, 백련사 신도님들, 씨네티아정보통신, 박성은, 고수경(미술활동), 주정미(민요춤체조), 천종임(경기민요), 김도연(이야기시간), 김재홍(즐거운성악)

## 후·원·자

\*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서는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 물품후원

보명사, 인천보살님, 던킨도너츠, 견성암, 박월서, 공무원연수원, 서서울고등학교, 푸드뱅크, 기아자동차, 백산초, 봉천놀이마당, 민병렬, 현성정사, 백련사, 독지사, 시청 KT&G재단, 구충수, 임옥수, 성산식품, 삼성생명, 동대중학교, 금천푸드뱅크, sknetwork, 선녀보살, 임문자, 선각사, 광명국악팀, 박경희, 김영만, 이귀자, 의료보험공단 금천지사, 동국대부속고등학교

### 지로후원

한독병원30,000	연흥구30,000	민병천90,000	이애자30,000	구충수300,000	임옥수300,000
구희관30,000	명법사40,000	구희관20,000	이은정20,000	구산20,000	문금자30,000
나영균30,000	석혜영10,000	구봉순30,000	이정호10,000	조관우20,000	윤재순60,000
한독병원60,000	한진택100,000	은선사20,000	백송풍20,000	안정희20,000	장영애30,000
이재임8,000	김수형10,000	서현종스님20,000			

### 현금후원

김주수250,226	김주현90,000	국영호600,000	박성수60,000	청담어린이집100,000
권기상150,000	임경자90,000	박두영150,000	구수미150,000	고영빈30,000
황재기30,000	배승진30,000	김은인30,000	박정진30,000	박혜정10,000
김선금100,000	묵산스님50,000	김동성100,000	김성현500,000	나운순10,000
김평소390,000	신인천100,000	동대부중50,000		
서울대림라이온스900,000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20,000		
증권선물거래소900,000		한태규150,000		

#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 자원봉사자모집

-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 모집내용 : 노력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 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여가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결연

## 후원자모집

- ▶ 후원내용 : 현금 후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품 후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품 후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 빵 등)  
가전 후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카메라 등  
생필품후원 - 락스, 피죤, 옥시크린, 각종 세제류

① 지로번호 : 7655940

① 지로계좌(우리은행) : 711-046904-13-012

① 우리은행 : 145 - 05 - 095018

① 예금주 : **혜명복지원**

### ♣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

1. 혜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혜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 시흥역 마을버스 금천 01번 범일여객 종점 하차
- 지하철 2호선 : 구로공단역 5617번 범일여객 종점 하차  
신림역 5413번 종점 하차

양로원 홈페이지

[www.hmtown.or.kr](http://www.hmtown.or.kr)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양로원

발행인 : 박재근(연성 큰스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 TEL 02)802-6765

FAX 02)892-2068